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8/04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23-24, 26-29, 31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십니다.

24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26 형제님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출신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며,

28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출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어

29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31 이것은 성경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마 11:19

19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 ‘보아라, 탐식가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골 2:3

3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곧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더 나아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피할 길을 찾으려 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7, 2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강조한다. 틀림없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위대한 기적이었을 것이다. ... 헬라인들은 아마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매우 철학적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들은 지혜를 탐구하는 중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었는지를 배우는 데 매우 흥미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곧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전 1:23). ...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었다.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고전 1:24)!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길이 없으시다.

우주에는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다. 사탄과 세상과 죄의 문제들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문제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은 타락하여 죄악된 존재가 되었다. 사람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들은 육체와 타고난 생명이다. 이에 더하여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낡아졌다. 즉 모든 것이 썩고 부패하였다. ... 낡음은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사탄과 세상과 사람, 그리고 죄와 육체와 타고난 생명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을 포함하여 우주 전체가 낡아지고, 부패하고 황폐해졌으며,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 모든 문제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활을 위해 주신 규례들과 규율들의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탄과 세상과 죄와 사람과 육체와 타고난 생명과 낡음과 규례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인간의 본성을 입으셔야 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 곧 피조물이 되셔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되셨다. 그분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사탄과 세상과 죄와 타락한 사람과 타고난 생명과 육체와 낡음과 규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인간적인 이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처형되셨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분의 이해는 달랐다. 요한복음 10 장 11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분의 목숨에 관하여 10 장 18 절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신다.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위도 있고, 다시 얻을 권위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주님의 목숨을 그분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걸림돌이셨고,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음이셨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사 하나님의 지혜이시다.(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82-83 쪽, 메시지 8, 84-8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8/05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6:6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전 1:3-9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두고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서 풍족하게 되고

6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여러분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7 여러분이 어떤 은사에도 부족하지 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8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사탄, 세상, 죄, 타락한 사람, 육체, 타고난 생명, 옛 창조물, 규례들을 패배시키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행사하신 능력처럼 말씀하심으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이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능력, 곧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의 능력이다. ...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을 멸망시키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제거하고 타락한 사람과 육체와 타고난 생명과 옛 창조물을 종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 한 번의 죽음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 되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8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능력과 지혜 둘 다 필요하다. ... 지혜는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능력은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에게 지혜 없이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자신의 능력을 어리석은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과 지혜 둘 다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사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신의 성질 때문에 직면하는 문제에 적용되실 수 있다. ... 어느 정도 생명의 성장을 체험한 뒤에 우리는 자신의 성질을 미워하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열망하게 된다. ... 결혼 생활에서 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온갖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성질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도해 왔다. “주 예수님, 당신은 제가 얼마나 쉽게 성질을 내는지 아십니까. 주님, 당신은 여호와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성질을 내는 이러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 주님, 저를 이 죄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성질에서 구출 받지 못했다. 우리 자신 안에는 결코 자신의 성질을 이겨 낼 능력도, 그렇게 할 지혜 곧 길도 없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도할 때조차 우리에게는 여전히 능력과 지혜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생명 주시는 영으로 충만될 때, 성질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질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처리하는 길을 둘 다 얻게 된다. 무엇이 이 능력과 이 길인가? 그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성질을 처리하는 능력과 지혜이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인내심이 많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다. ...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인내가 생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내를 위한 능력과 지혜 둘 다 가져다 준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길을 둘 다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는 인내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인내하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온갖 종류의 인간 체험에 적용될 수 있다.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과 승천의 요소도 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풍성을 체험하는 길이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87-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8/06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엡 1:9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골 1:9

9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고전 1:18-21

18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9 성경에도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 버리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물리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21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전 2:2

2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갈 3:1

1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습니까?

에베소서 1 장 9 절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그분의 선한 기쁨에 대해 말한다. 3 장 11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대해 언급한다. 더 나아가 바울은 1 장 11 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시는데, 이 계획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른 것이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길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길에 따른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깊고도 심오하다. 그렇지만 이 심오한 것들은 우리의 체험에 적용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88-8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둘 다가 되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다만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길을 갖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마음을 먹거나 굳게 결심할 필요가 없다. ... 그리스도인들은 각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는다. ...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 몇 달 혹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뒤돌아본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일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종결된다.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종결된다. ...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단순히 체험할 때 우리는 종결된다. 사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는 동안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종결할 것이다. 우리의 온 존재가 종결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가 육체와 타고난 생명과 옛 창조물에서 구출되기 위한 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능력이실 뿐 아니라 길이다. ... 부름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구출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이러한 구원받는 과정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더욱 구원받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된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89-90 쪽)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어떤 것을 이루려면 우리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둘 다 필요하다. 능력은 힘이고, 지혜는 길이다. 그리스도는 먼저는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런 다음 우리의 지혜 곧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많은 짐을 짊어지며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나에게 능력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 4:13) 라고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는 신성한 분배하심을 통해 매일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신약의 결론, 개정 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7, 24-2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8/07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2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빌 4:13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롬 10:14

14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 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행 9:14, 21

14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21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없애 버리려 하던 이가 아닙니까?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행 13:48

48 그러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행 22:16

16 그러니 이제 무얼 주저하십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셔서 우리의 체험에서 현재의 실지적인 지혜가 되신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적용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그분의 분배를 받는다면, 그분은 모든 종류의 문제들과 일들을 다루는 지혜로서 우리 안으로 전달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지혜로 적용하는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7, 2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일을 하는 합당한 길을 알겠지만,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면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리석은 것이다. ... 믿는 이들에게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사실상 신성한 길이시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 장 30 절에 있는 지혜’는 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 장 6 절에 있는 ‘길’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께 참여한다면, 그분을 우리의 지혜 곧 우리의 길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온다. 매일 매시간 우리는 영 안에 살며, 영을 사용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지혜, 곧 우리가 여러 일을 수행하는 길로 갖게 될 것이다.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고전 1:30)라고 말한다. ...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라는 표현은 전달의 방식으로 현재, 실지적이고, 체험적이며, 계속 진행되는 무언가를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것은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매일의 체험을 위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전달되시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 장 30 절을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속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 자신과 별개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지혜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전달하시는데,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들로 조성하는 신성한 요소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다. (1) 의(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이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롬 5:18). (2) 거룩하게 함(우리의 현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다(롬 6:19, 22). 즉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다. (3) 구속(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즉, 우리 몸의 구속(롬 8:23)이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빌 3:21). 우리의 온 존재, 곧 영과 혼과 몸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한 면으로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 단계를 다룬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위한) 영의 거듭남과, (우리의 현재를 위한) 혼의 거룩하게 함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 몸의 구속이다. 또 다른 면으로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에서 매일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본성의 세 방면을 가리킨다. ... 매일 우리는 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의롭게 되어야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구속받아야 한다. 우리 존재 안으로 전달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심으로, 우리를 행위에서 의롭게 하시고 본성에서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의롭고 거룩해야 한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 구속하신다(벧전 1:18). 우리 매일의 생활과 일은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거룩해야 하며 구속받아야 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7, 25-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8/08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30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롬 6:22

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롬 5:18

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엡 3:20-21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 12:10-11

10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11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를 돌보신다. 과거에 우리는 불의하여 항상 불의하게 행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서 우리 안으로 전달되시어 우리의 과거를 돌보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과거 생활은 최악된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참된 해결책이자 참된 치료책이다. 이전에 우리의 과거는 죄들과 그릇 행한 것들로 인해 끔찍했지만, 이제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스럽다. 그분에 의해,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고,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았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7, 2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의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도록 우리의 과거를 위한 의가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현재의 의가 되셔야 한다.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향하여 올바르게 공정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 그 결과 우리는 생활 가운데 모든 말과 행동과 움직임과 행위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다 (롬 3:26).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의 표준에 따라 우리를 인정하시는 행동이다. ...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고 항상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삶을 우리를 위해 사시는 분이시다 (빌 3:9).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매일의 의가 되신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의이신 그분을 또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접촉 할 때 의로워진다. 그분을 접촉하고 누릴수록 더욱더 그분 안에서 의로워진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일해 넣어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후 5:21).

거룩하게 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를 돌보신다. ... 자신 안에서, 즉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신성한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 존재 안으로 전달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성별하고 분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함은 거룩함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그 상태 자체를 가리키는 데 비해, 거룩하게 함은 거룩함이 우리의 체험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름으로써,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함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매일 매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체험한다. 우리의 외양과 태도와 관계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매일의 행함의 모든 방면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체험해야 한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더욱더 속된 것들에서 분별되고 우리 자신이 속되지 않도록 분별된다.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성별되고 분별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속되지 않게 되며, 오히려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고 구별되어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 이것이 거룩하게 함,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함이 되신 그리스도는 위치적으로 뿐 아니라 기질적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이럴 때 우리는 속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될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시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요인이시다. 그분을 통하여 신성한 분배가 우리 안으로 계속 전달되어 우리의 온

존재, 곧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한다. 즉 우리를 신성한 요소로 가득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든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7, 28-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7

8/09 토요일

아침의 누림

롬 8:23

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빌 3:21

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엡 4:20-24, 30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구속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를 돌보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 안에서 거듭났다. 바로 이러한 방면에서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룩하게 함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장래 우리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이 되실 것이다. 어느 날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빌 3:21).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 곧 우리의 아들의 자격에 대한 완전한 누림이다(롬 8:23).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7, 30-3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타고난 존재와 육체와 자아와 세상과 죄와 옛 창조물과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구속받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 먼저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옛 창조물 안에 있고 타고난 생명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속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몸이 구속될 때 우리의 온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과 광채를 표현할 것이다.

구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종결되고, 대치되는 것이다. ...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의 구속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빛나갈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 의롭고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둘째로, 구속은 또한 종결을 포함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자양분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종결하신다. ... 셋째로, 구속은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결하실 때,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신다. ... 이것은 우리를 분별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룩하게 함 그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요소와 옛 조성이 종결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인 새 요소와 새 조성으로 대치되는 실지적인 과정이다. ... 장래 우리 몸의 구속은 우리 몸의 변형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 존재를 변형시키시는 분으로 체험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종결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한다. 교회생활에서도 우리에게서 구속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선호나 관심과 같은 많은 문제에서 여전히 매우 천연적이기 때문이다. ... 모든 일에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되며, 구속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매일의 체험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실 때, 결국 모든 것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실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누리는 이들인 우리에게로 전달되고 계신다(엡 1:19-22).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전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도 없다. 때로 우리가 약해져서 죄나 어둠 속에 빠짐으로써 일시적으로 이 전달에서 끊어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께 돌이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다시 그 전달에 연결된다. 전달이 다시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전달 안에 머물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지속적인 전달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7, 31-3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7

8/10 주일

아침의 누림

롬 11:33-36

33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34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 있거나,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 있습니까?

35 아니면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린 적 있어 돌려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36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전 2:16

16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 4:8-11

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위와 그 안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9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무궁히 살아 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10 스물네 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히 살아 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금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11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